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70)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10 (2)96사단 주둔지-(9)도두봉
원형 간직한 日 갱도 생생

입력 : 2007. 06.14. 00:00:00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도두봉에 구축한 갱도진지 내부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갱목흙 흔적(사진 왼쪽). 오른쪽은 갱도 내부에서 희미하게 입구가 보인다. /사진= 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정뜨르비행장 방어를 위한 전진기지

근대문화유산 등록 등 보존 활용해야

'섬의 머리'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도두봉. 제주시 서쪽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도두봉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전진기지였다. 일본 육군이 만든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그만큼 군사적 주목을 받았다.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처럼 제주시 해안을 낀 정뜨르비행장은 일본군이 최우선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군사시설일 수 밖에 없다.

도두봉(표고 65.3m)이 있는 제주시 도두동의 '오래물' 또한 정뜨르비행장의 급수원으로 이용됐다. 마을주민들은 미군 잠수함의 공격에 여러 명이 숨지는 비극을 겪는다. 60여 년 전의 도두동 일대 주민들은 전쟁으로 한바탕 난리를 겪고 있었다.

도두봉 주둔 일본군은 '도노미'(정실마을 일대)에 사령부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나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에 비취 제96사단 예하의 부대가 파견돼 갱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 도두봉에서 확인되는 일본군 갱도는 모두 4곳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갱도는 오름 하단부에서 찾을 수 있다. 총 길이는 90여m 정도, 입구가 양쪽으로 나 있다.

갱도는 내부에 크고 작은 공간이 3~4개 만들어져 있는데, 벽면에는 갱목을 세웠던 흔적과 등잔홈 등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일정한 병력이 지금도 내부에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구조다. 이 갱도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거의 원형대로 남아있어서 매우 주목된다.

갱도 앞쪽으로는 교통호가 30여m 정도 길게 나있다. 교통호 중간 중간에는 1~2명의 병력배치가 가능한 참호도 남아있다. 교통호 끝부분에도 수직형태로 갱도입구가 나타나고 동남쪽으로 반쯤 매몰된 또다른 입구도 보인다.

소규모 갱도는 이보다 30~40m 위 지점인 포제단 근처 기슭에서 찾을 수 있다. 구조는 양쪽으로 입구가 난 디귤(ㄷ)자형으로 길이가 10m 정도로 작다. 도두봉의 갱도 맞은편으로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손에 잡힐 듯하다.

도두봉 정상부에서는 시멘트 흔적들을 볼 수 있다. 오름 정상부에 남아있는 시멘트 흔적들은 무엇일까. 일본군은 정뜨르비행장에 물을 급수하기 위해 '오래물'의 물을 끌어올린다. 오름 정상부에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두 개의 시멘트구조물이 만들어진다. 오래물~도두봉~정뜨르비행장을 연결하는 물길이 이어졌던 것이다. 당시의 시멘트 구조물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남아있었으나 마을주민들에 의해 철거된 상태다.



▲교통호 끝에 나 있는 갱도 입구.

도두봉의 일본군 갱도는 지금이라도 당시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크다. 또한 접근성이 좋고 도두봉 자체가 산책코스도 인기를 끌고 있어 보존·정비를 통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 표성준 이승철기자

[현장 인터뷰/도두동 고승만 김희천씨]미군 잠수함 공격으로 마을주민 5~6명 희생

일본 육군이 만든 비행장이 있었기 때문일까.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 도두동의 주민들 역시 비명횡사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겪는다.

제주시 도두동 경로당에서 만난 노인회장인 고승만씨(1930년 생·호적은 1931년 생)와 김희천씨(1929년 생·호적은 1931년 생) 등 마을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 도두리에는 목선 20척 정도와 발동선 3~4척이 있었다. 이 배들은 '비행장



(정뜨르비행장) 소속'으로 징발·관리되고 있었다. 일본군인들은 생선을 공출하기 위해 민간선박을 동원해 고기잡이에 나서기도 했다는 것. 김씨는 "잡은 고기를 감춰버릴까봐 출항할때는 선박마다 일본군 1명이 탔다"고 말했다.

▲일본군 주둔당시를 증언하는 김희천씨(왼쪽)와 고승만씨. 그런데 어느 날 도두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해상에 고기를 잡기 위해 일본군인을 태우고 나갔다가 삼시간에 미군 잠수함 공격을 받아 당시 5~6명의 마을주민들이 죽었다는 것. 김씨는 "당시 미군잠수함은 일본군이 있는 배만 쏘았는데 잡은 고기를 흔들면서 내보이자 그냥 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때 5촌이 미군 잠수함의 사격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고발생 날짜(1945년 음력 4월 27일)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죽은 주민의 무덤은 도두봉 남쪽에 있다.

김씨는 또한 일본군이 정뜨르비행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래물'의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할 당시 직접 노무자로 일한 아픈 기억도 털어냈다.

일본군들은 도두봉 정상에 사각형으로 2군데 저수시설을 만든 뒤 시멘트로 파이프를 만들고 '오래물'과 연결시켜 물을 끌어올려 비행장으로 공급했다. 김씨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목도질로 시멘트파이프를 나르는 일을 했다는 것.

김씨는 이어 "일본이 전쟁에 패한 뒤 들어온 미군들은 단 이틀 만에 기계를 설치해서 '오래물'의 물을 끌어올렸다"며 "그걸 보고 그 정도의 일본놈들이 미군을 이기려고 했구나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일본군에 대해 "'도노미'에 일본군사령부가 있었다"며 "도두봉에는 소대나 분대정도의 병력이 주둔했다"고 말했다. 일본군들은 '도노미부대'라고 불렀다.

고승만씨는 "당시 도두리 민가에 일본군 1개 소대 정도가 살았었다"며 정뜨르비행장을 만들 당시에는 국민학교 2학년(해방되던 해 졸업)부터 '떼'를 나르는데 동원되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당시는 그것이 일과였다. 고씨는 또 비행장 공사 한 다음에 도두봉에 저수탱크를 만들었다며 정뜨르비행장에는 일명 잠자리비행기(아카톰보를 말함)가 왔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두봉에 고사포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렸다.

고씨는 "도두봉 정상에는 고사포 4기가 설치됐었다"고 증언한 반면 김씨는 "도두봉 옆 자신의 밭에 비행기 사격장을 만들어 비행기에서 직접 사격연습 했었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